

퍼스트레이디 미셸 오바마의 생애와 “미셸효과”에 관한 연구

이 창 신*

차 례

- I. 서론
- II. 미셸 오바마, 강한 여성'에서 '강한 아내'로의 변화
- III. '가족적 가치'와 '백악관 부엌 텃밭' 캠페인
- IV. 패션 아이콘 퍼스트레이디
- V. 새로운 퍼스트레이디의 새로운 리더십
- VI. 결론

I. 서론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전은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 후보 버락 오바마(Barrack Obama)와 여성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경합을 벌였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여기에 최초의 흑인 퍼스트레이디 후보였던 미셸 오바마(Michelle Obama)는 많은 언론의 집중을 받았다. 미셸에 대한 초기 언론의 관심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다. 미국의 보수 언론들은 미셸의 화난 흑인 여성의 이미지를 강조하였고, 그녀 또한 이러한 언론에 대해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였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가 2012년 재선에 성공한 이래 미국에서 미셸의 인기는 오바마 대통령 보다 훨씬 높아졌다. 미셸은 오바마 대통령의 가장 든든한 정치적 자산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적 가치관, 패션 감각, 그리고 퍼스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트레이디로서의 새로운 리더십이 지대한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미국 역사상 퍼스트레이디들은 매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미국 초대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마사 워싱턴(Martha Washington)은 전형적인 아내로서의 퍼스트레이디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마사 워싱턴이후 미국인들에게 아직까지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퍼스트레이디들 중에는 엘리노어 루즈벨트(Eleanor Roosevelt), 레이디 버드 존슨(Lady Bird Johnson), 그리고 재클린 케네디(Jacqueline Kennedy)등이 있다. 미국인들이 그녀들을 좋게 평가 하는 이유는 다양한데 이는 곧 퍼스트레이디의 역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1990년대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퍼스트레이디들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패션의 유행을 선도하거나 자선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에게 자문을 해주는 역할 등이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미국인들은 여전히 그들의 퍼스트레이디가 모성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infield 226, 248). 그러한 점에서 퍼스트레이디 미셸 오바마는 아내나 어머니 역할 외에도 기존 퍼스트레이디들이 보여 주었던 다양한 역할들을 조화롭게 수행하고 있는 21세기형 퍼스트레이디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본 논문의 기본 논지라 하겠다.

현재 국내에서는 미국의 퍼스트레이디 미셸 오바마의 생애와 패션에 대한 역서들은 많이 소개되어 있다. 그것들은 주로 미셸 오바마의 개인사를 중심으로 한 내용들이거나 아니면 개인적 패션 감각을 중심으로 한 논문이나 책들이다. 학문적으로 그녀의 정치철학이나 리더십 또는 “미셸 효과(Michell Effect)”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원래 “미셸효과”라 함은 2010년 뉴욕대 예르마크교수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를 통해 소개한 개념으로 미셸의 패션이 미국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를 의미한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미셸 오바마가 미국 최초의 흑인 퍼스트레이디가 된 이후 미국사회에 끼친 다양한 영향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현재 미국의 퍼스트레이디인 미셸 오바마의 등장과 “미셸 효과”를 그녀의 가족적 가치관, 정치철학, 그리고 패션철학 등 다양한 각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한 사료로는 신문과 잡지, 방

송 등의 다양한 매체에서 다룬 미셸 오바마의 인터뷰자료와 연설문등으로 본 연구에서는 그녀의 철학과 주장을 이러한 원문을 통해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에 따른 중요 쟁점들은 첫째, 2008년과 2012년 두 번의 대통령 선거를 치루면서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닌 여성으로 미국 유권자들에게 비춰진 미셸 오바마의 성장배경 속 ‘미국인의 꿈(American Dream)’이 잉태과정과 그녀의 정치철학의 진화과정; 둘째, 미셸 오바마가 퍼스트레이디가 된 후 패션 아이콘으로 자리 잡는 과정 속에서 버락 오바마의 아젠더, 즉 ‘변화’와 ‘희망’을 패션을 통한 소통방법으로 재 창출해 가는 과정;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퍼스트레이디로서 과거의 퍼스트레이디들과 차별화된 리더십을 구축해 가는 과정 등 이다. 특히, 미셸 오바마는 강한 여성(power woman)에서 강한 아내(power wife)로, 더 나아가 강한 엄마 사령관(mom-in-chief)으로 변화를 모색하면서도 모든 영역에서 강인함과 당당함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자신감의 근저에는 어떠한 그녀만의 철학이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을 통해 시도된 이러한 쟁점들의 논의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퍼스트레이디로서 미셸 오바마의 리더십의 새로운 면모를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21세기의 새로운 여성적 리더십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II. 미셸 오바마, ‘강한 여성(Power Woman)’에서 ‘강한 아내(Power Wife)’로의 변화

2009년 1월 20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시작되면서 미국은 두 명의 여성들에게 관심을 초 집중하였다. 첫째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퍼스트레이디 미셸 오바마였고, 두 번째는 미국무장관에 임명된 전 퍼스트레이디 힐러리 클린턴이었다. 이 두 여성은 모두 ‘강한 여성들(power women)’이었다. 그러나 퍼스트레이디를 지내고 그녀 스스로 정치적 경력을 쌓아가는 힐러리와는 다르게 미셸은 ‘강한 아내(power wife)’의 이미지가 더욱 강하게 비춰졌다. 이는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미셸이 점차적으로 변화를 모색

한 결과이기도 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강한 아내'의 이미지가 전통으로의 회귀 즉 전형적이고 수동적인 아내의 이미지와는 상반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21세기 새로운 모성성의 패러다임을 전제로 여성으로서의 강인한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남편과 자녀를 포함하여 가정을 이끌어 주는 모성의 이미지 창출을 의미한다. 이러한 미셸의 강인함은 그녀의 성장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1964년 1월 17일 시카고에서 출생한 미셸 오바마는 부모님인 프레저 로빈슨(Fraser Robinson)과 마리안 쉴드 로빈슨(Marian Shields Robinson)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다. 어린 미셸에게 부모님은 큰 울타리가 되어 주었고, 정신적 지주로서 부모님은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미셸의 부모님은 매우 헌신적이었고 열심히 일했으며 그들 덕분에 미셸과 오빠는 그들 부모가 미처 꿈꾸어 보지 못했던 기회를 꿈꿀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부모의 태도는 미셸의 인격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 자주 언급하였고, 미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인종차별을 경험한 부모님은 미셸에게 인생이라는 것이 언제나 정당한 대가를 얻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열심히 노력하라고 가르쳤다. 덕분에 미셸은 어려서부터 자기 의사표현을 확실히 하는 어린이로 성장할 수가 있었다(Vander, *Michelle Obama* 6,7). 그녀의 오빠는 성장기 경험을 바탕으로 미셸이야말로 그가 아는 어떠한 사람보다도 열심히 일하며 또한 강인한 여성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는 어린 시절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내가 농구연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미셸은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었고, 내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도 그녀는 여전히 일했고, 내가 텔레비전을 끄고 자러갈 때 까지도 그녀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Lightfoot 33).

미셸의 어린 시절 이러한 강인함과 당당함은 퍼스트레이디로서 그녀가 항상 정직하고 매사에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학창시절 미셸은 매우 활동적이고 열성적인 학생이었다. 흑인 여성이 프린

스틴 대학과 하버드 로스쿨을 다니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프린스턴 대학은 미셸에게 매우 낮은 곳이었다. 특히, 시카고 남부에서 온 가난한 흑인 소녀에게 프린스턴 대학은 무척이나 잔인했다. 대학 입학 첫날 들어온 기숙사에 룸메이트는 얼굴도 마주치지 않은 채 방을 바꿔 버리기도 했다. 미셸은 후에 이곳에서의 생활을 “나는 때때로 이곳 캠퍼스에 어울리지 않는 손님과 같은 느낌 이었다”라고 회고하였다(Edward 22). 소수의 흑인 학생들 중 한 명이었던 미셸은 소수자를 위한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걸 알았으며 이런 분위기의 프린스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셸이 프린스턴 대학에 진학 했을 때 그곳은 흑인학생이 전체 학생에 10 퍼센트가 채 못 되는 흑인에 대한 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학교였다. 그런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하면서 미셸은 생산적인 방법으로 차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마음먹고 ‘제 3세계 센터’와 같은 단체에 참여해 활동하기도 하고, 흑인학에 대하여도 열심히 연구하였다(Rogak 37). 이러한 학창시절의 경험은 미셸로 하여금 인종문제에 대해 좀 더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미셸이 하버드 법대를 졸업한 후 법률회사에 취업했을 때 그녀는 그 즉시 팀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그녀가 담당했던 일은 마케팅과 지적 재산권에 관한 업무였다. 그 중 아르코(Arco)와 관련된 일에서 미셸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회사 상사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녀와 같이 일했던 동료 에이머(Nate Eimer)는 내셔널 로우 저널(National Law Journal)과의 인터뷰에서 “미셸은 어떤 사건의 분석이든 철저히 끝내지 않고서는 결코 입을 열지 않았다(Lightfoot 34)”라고 언급하면서 그녀가 단연 능력이 뛰어난 동료였음을 밝혔다. 미셸 오바마와 일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녀가 정력적인 사람이며, 항상 준비 되어 있고 무엇인가를 반드시 이루고야 마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였다. 이것은 그녀가 아내, 엄마, 병원행정가 그리고 대통령 선거전에서 강인한 동반자로서의 책임감을 발휘하는데 있어 균형 감각을 잃지 않았던 모습에서도 잘 보여주었다. 어떠한 일을 수행하던지 미셸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최고의 성공을 이루어 내는 강한 여성이었다.

미셸이 강한 여성 뿐 만 아니라 정치인의 강한 아내(power wife)로서의 역

할수행은 2004년 이래로 시작되었다. 버락 오바마는 2004년 시카고 선거에서 대중들을 향한 강력한 연설로 대중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되었다. 이 연설은 매우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오바마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미셸 오바마 역시 정치인의 아내로서 관점의 전환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버락 오바마는 한 가정의 가장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오바마는 더 이상 한 여자의 남편이 아닌 세상의 관심이 집중된 인물이 되었고 미셸은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해 나가야 했다(Betts 151). 오바마가 정치에 진출한다고 했을 때 미셸은 처음에 이를 반대하였다. 미셸과 버락 오바마는 여러 면에서 서로 상반되었다. 버락은 이상주의자였고 반대로 미셸은 현실주의자였는데 당시 현실적으로 공직출마는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오바마는 미셸에게 그의 포부를 말하면서 희망에 가득 찬 모습을 보여주었고 미셸도 이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하지만 미셸에게 있어서 가정과 자녀교육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선거운동 당시에 약속하기를 아이들이 자기 전까지는 가급적 집에 돌아올 것이며 집에 있을 시간에는 아이들과 정성을 다해서 놀아주기로 한 대가로 선거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선거운동기간 동안 오바마는 미국의 ‘변화’와 ‘화합’을 주장하였고,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하고자 하는 것을 미셸은 높이 평가하게 되었다.

미국에서 정치인의 아내가 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정치인의 강한 아내가 된 후 미셸은 정치적 무대로 차차 그 활동범위를 넓혀갔다. 미셸의 정치적 활동의 첫 시작은 대중들 앞에서 남편인 버락 오바마를 간단히 소개하는 작업으로부터 시작 되었다. 초기에 미셸은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것이 매우 어색하고 편하지 않았지만 차차 이러한 일들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미셸의 연설은 여러 면에서 진화를 거듭해 왔는데 이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초기 연설에서 그녀는 버락 오바마와의 개인적 이야기를 관중들에게 호소력 있게 표현하였다. 그것은 그녀와 버락 오바마와의 관계가 서로의 결점을 잘 보완해 주는 관계임을 알리는 내용들이었고, 이는 버락 오바마가 정치적으로 경력이 부족한 점을 어느 정도 보완해 주었다. 이러한 면모는 대통령 선거 전략에서도 미셸이 버락 오바마의 강인하고도 영향력 있는 내조자임을 강조 하므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2007년 뉴욕에서 있었던 한 행사에서 미셸

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

나는 솔직히 항상 나의 남편이 미 전역을 순회할 때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볼 때면 겸손해 지고 많이 놀란다... 버락은 하버드 법대 재학 중 로 리뷰(Law Review)편집장을 지내고 시민변호사, 베스트 셀러 작가 등의 매우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집에 사는 버락 오바마의 실생활을 보면 실수 투성이인 평범한 남편이다(Vander, *Michelle Obama to Martha Washington* 176).

미셸은 이렇게 버락 오바마의 단순한 결점들을 나열 하므로써 버락 오바마의 인간다운 면모를 강조하였다. 미셸은 정치기금 마련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2007년 3월 미셸은 아이오아(Iowa) 지인의 집에서 최초의 단독 파티를 열게 되었고, 한 달 뒤 시카고에서 최초 단독 기금 마련 이벤트를 개최하였다. 뉴스 리포트에 따르면 기금마련 파티에서 미셸은 75만 달러의 기금을 마련하였다. 2008년 미셸은 오바마의 캠페인을 통해서 강한 정치인의 아내로서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하였다. 그 중에서도 미셸은 ‘유에스 위클리(US Weekly)’나 ‘엑세스 할리우드(Access Hollywood),’ ‘피플(People)’과 같은 잡지나 ‘더 뷰(The View)’와 같은 텔레비전 쇼에 참여하여 정치인의 아내로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Lightfoot 14). 이렇게 미셸의 정치적 행보는 단순한 연설을 시작으로 해서 점차 정치적 기금마련이나 미디어를 통한 적극적 홍보활동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버락 오바마의 정치적 경력을 돕는 강한 아내의 이미지로 변신을 거듭하였다.

이러한 미셸의 정치적 행보에 장애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8년 대통령 선거전이 한참 진행될 때 힐러리 못지않게 미셸 오바마도 상대 진영으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보스턴 글로브의 한 기자는 “강인하고 솔직한 아내들은 후보, 특히 민주당 후보를 유약하고 비애국적으로 보이게 만든다”라는 기사를 썼다(*Boston Globe*, June 29, 2008). 버락 오바마가 미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어려움은 마찬가지였다. 미국의 첫 번째 흑인 퍼스트레이디인 미셸 오바마의 초기의 이미지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그녀는 무뎉뎉하고 충동적이고 때로는 남편인 버락 오바마가 양말을 제대로 벗어놓지 못한다는 등의 에피소

드를 거침없이 말하는 지나치게 솔직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오바마의 최고 참모인 데이비드 악셀로드(David Axelrod)는 뉴욕커(The New Yorker)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미셸의 지나치게 정직한 면은 “때때로 사람들에게 시기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고 말하였다. 심지어는 그녀는 애국심까지도 의심받기도 하였다. 2008년 2월에 있었던 밀워키 행진에서 그녀는 “성인시절 최초로 나는 진심으로 나의 국가가 사랑스럽다”고 말하였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 언급에 대해서 보도하면서 내셔널 리뷰(National Review)의 보수주의 성향을 지닌 한 기자는 그녀를 ‘불평 부인(Mrs. Grievance)’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또한 신문의 특별 기고자인 토마스는 그녀를 ‘화가 난 흑인여성(angry black woman)’이라 부르기도 했는데 이는 나중에 보수적 언론매체인 폭스 뉴스(Fox News)를 통해 확산 되었다(Betts 3, 4).

미셸은 흑인사회와 일하는 여성들과의 정서적 교감을 통해서 오바마 정부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었다. 이것은 미셸이 오바마의 강한 아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었다는 증거가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버락 오바마가 혼자였다면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배경에는 오바마를 지지하지 않았던 흑인그룹이 있었다. 그들은 오바마가 저소득층 흑인이 아니라서 진정한 미국의 흑인들의 고통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미셸은 전통 흑인 중심의 마을에서 자랐기 때문에 흑인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었다. 미셸의 존재는 흑인들로 하여금 오바마에게 투표할 욕구를 되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미셸은 오바마가 일하는 중산층 가족들과의 교감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는 평소에 오바마가 미셸의 일하는 엄마(working mom)로서의 고충을 나누면서 시작되었다. 오바마가 정치적 경력을 시작하던 무렵 미셸은 일하는 엄마의 어려움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었다. 또한 그녀는 일하는 엄마들이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싶다는 욕구와 사회적인 성취를 이루고 싶다는 욕구가 상충될 때 어떠한 갈등을 느끼게 되는지를 토로 하므로써 오바마에게 직장을 다니는 중산층 엄마들의 고충을 납득할 수 있게 하였다.

2008년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미셸은 TV에 활발하게 출연하였다. 그녀가 출연했던 프로그램 종류도 코미디, 청소년 대상 시트콤, 다이어트

리얼리티쇼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매우 다양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정치적인 의도이기 보다는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셸은 방송출현을 즐겼는데 실제로 이것은 버락 오바마의 재선에 큰 도움이 되었다. 방송출연의 경우 미셸은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은 삼가하였다. TV에 출연하는 동안 논란이 될 만한 실업이나 건강 보험 등의 이슈에 대한 질문을 받기보다는 미군의 명예를 고양하거나 어린이 비만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캠페인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2008년 ‘바바라 윌터쇼’에 출현한 버락과 미셸은 앞으로 지내게 될 백악관 생활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미셸은 “나는 오히려 백악관 생활을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해 매우 흥미를 느낀다”고 답변하였다(Norwood 135). 또한 바바라 윌터가 미셸이 커리어를 그만둔 점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해 질문했을 때 미셸은 이것은 더 큰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작은 희생에 불과하다고 답변하였다. 더불어 그녀는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기를 바라며, 어린 두 딸이 평범하게 잘 자라 주기를 희망했다. 인터뷰에서 두 딸이 이미 백악관에 들어가서도 그들의 방과 침대정리는 스스로 하도록 백악관의 직원들과 말을 끝낸 상태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버락 오바마는 “우리가정은 엄마가 행복해야만 우리 식구 모두가 행복하다”고 설명하였다(Norwood 137).

‘강한 여성’에서 정치인의 ‘강한 아내’로 그 역할을 확대해 가면서 미셸은 스스로 새로운 정체성 형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녀는 나중에 이 과정에서 느꼈던 어려움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에 대한 그녀의 대답은 가족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알았기 때문에 반대와 맞서면서도 모든 일을 명확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미셸이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좀 더 확신을 갖고 임할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보다도 아는 것을 과장하거나 간과하지 않고 솔직해 지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큰 도움이 되었다. 그녀의 이러한 노력은 한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 잘 나타나 있다.

저는 단지 제 자신이 되려고 노력할 뿐이고, 될 수 있는 한 진짜가 되려고 할 뿐이에요. 제가 모든 연설에서 진하려는 것은 ‘그냥 당신 자신의 모습’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데 그것은 다름 아닌 다른 사람 행세를 하지 않아도 되는 한,

다른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알게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Chicago Tribune*, December 17, 2007).

2008년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미셸 오바마는 또 한번의 변화된 이미지를 창출하게 된다. 그것은 대통령의 ‘강한 아내’에서 가족적 가치와 ‘백악관 부엌 텃밭’ 캠페인을 주도하는 미국인의 강한 ‘엄마 사령관(Mom-in-Chief)’으로의 이미지 변신을 의미했다.

Ⅲ. ‘가족적 가치’와 ‘백악관 부엌 텃밭’ 캠페인

미국의 퍼스트레이디는 고유한 임무를 맡은 의미있는 자리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다. 역대 퍼스트레이디들 중 엘리노어 루즈벨트는 경제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캠페인을 제시했고, 낸시 레이건은 불법 마약추방을 위한 캠페인, 그리고 바바라 부시는 가족적 가치와 문맹퇴치 캠페인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의미있는 활동을 전개해 왔다(Gould 679). 2009년 오바마 행정부가 시작된 이래 퍼스트레이디 미셸 오바마는 이전 퍼스트레이디들의 활동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캠페인을 구상하였다. 2008년 대통령 선거전에서 미국인을 향한 버락 오바마의 메시지는 ‘인종적 화합,’ ‘변화’ 그리고 ‘희망’이었다. 미국인들은 화합을 바탕으로 한 변화된 미국사회를 원했고, 그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절실한 희망이 필요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러한 정치철학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행해 갈 때 미셸 또한 퍼스트레이디 입장에서 미국인들에게 화합, 변화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했다. 그것은 미셸의 정치철학의 바탕이 되었던 가족적 가치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특히 어린이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일이었다. 이 모두 강한 ‘엄마 사령관(Mom-in Chief)’이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2008년 선거에서 승리한 뒤 미셸은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하였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계속해서 엄마 사령관 역할을 해 내는 것이다. 우리 가족이 겪고 있는 이 과도기에 나는 두 딸들이 이 상황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도록 하는 일이다(Rogak vii).

이것은 그녀가 다른 무엇보다도 딸들의 정서적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미국인들에게 있어 가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미셸 오바마는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 가족 붕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족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강조하였다. 그녀의 이러한 주장은 단순히 전통적 가치를 넘어 다양한 의미를 지닌 아젠더가 되었다. 가족적 가치를 주장함에 있어 내세운 이미지는 그녀 자신이 미국 상류층 출신이 아닌 행복한 중산층 가정 출신으로 미국인들에게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공간인지를 심어주려 노력해왔다는 점이다(Edward 15). 이는 1980년대 미덕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가족적 가치가 미국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강조했던 전 퍼스트레이디 바바라 부시의 리더십과도 일맥상통하면서 보수적인 중산층의 지지를 도모했다. 공화당 대통령 조지 부시의 퍼스트레이디였던 바바라 부시는 와스프(White Anglo Saxon Protestant, WASP)의 가족적 가치와 자녀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한 것으로 유명하다. 1989년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던 한 언론 모임에서 그녀는 “가정에서 자녀들은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대상이다. 여러분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던 간에 자녀를 돌보는 일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입니다(William 36)”라고 말하면서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그녀는 또한 “우리는 가족으로부터 큰 힘을 얻습니다... 당신이 일반 사람들로 부터 고립된 위치에 있을 때 당신은 자녀들이나 친한 친구들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William 84)”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가족적 가치의 중요성은 보수 성향의 공화당 정권에서 주로 강하게 주장했던 아젠더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셸의 가족적 가치의 주장은 미국의 보수층의 지지를 끌어내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셸의 가족적 가치를 강조하는 메시지는 바바라 부시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었다. 전형적인 와스프가족을 대표하는 바바라와는 다르게 미셸은 일하는 엄마를 둔 가족이나 소외된 그룹의 가족에 더 많은 관심

을 보였다. 그 예로 미셸은 이전의 퍼스트레이디들은 신경을 쓰지 못했던 미군 가족들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군인들이 복무를 마치고 귀향하면 상당한 적응기간을 필요로 하며 군인들이 민간인으로서 보통의 생활을 시작할 무렵에 재 입대 하는 경우에도 가족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을 알고 있는 미셸 오바마는 현재 군인가족을 위한 다양한 일들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미셸이 성장기 행복했던 가족적 분위기가 큰 영향을 끼쳤다. 자녀교육 방법에 있어서 미셸에게 중요한 롤 모델은 부모님이었다. 미셸의 오빠 크레그(Criag)는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미셸은 매우 정직하고 규율을 잘 지킨다... 그녀가 아이들을 사랑스럽게 키울 수 있었던 배경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키운 방법과 매우 유사하게 아이들을 키웠기 때문이다(ABC News, July 7, 2008).

미셸의 훈육 방침은 굉장히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미셸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던 인내하는 방법,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던 당당하게 사는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가르쳤다.

우선 미셸이 그녀가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강조하는 데에는 첫 번째 일하는 엄마로서 자녀양육에 대한 중요성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같은 맥락에서 가족들의 건강, 특히 어린 두 자녀의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이었다. 퍼스트레이디의 첫 번째 임무는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이었다. 미셸은 하버드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이지만 항상 두 딸의 엄마 구실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았고, 미국인들은 이를 매우 높이 평가하였다. 비록 매우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미셸은 두 딸에 대해 관리를 전혀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다. 미셸에게 있어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Edward 82). 2008년 미셸은 두 딸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지 모른다면 선거운동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다

가 결국 오바마가 금연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서야 선거운동에 나선 것은 유명한 일화다. 퍼스트레이디가 된 후에도 이러한 생각은 변함이 없었다. 만일 미셸 오바마에게 퍼스트레이디로서 첫 번째 아젠더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그녀는 확고하게 그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일은 두 딸 말리아와 나타샤를 돌보는 일이라고 주저 없이 대답했다. 2008년 2월 한 인터뷰에서 미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아이들이 똑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들이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다... 나는 엄마로서의 임무가 가장 중요한 전문직 여성이다(*Wall Street Journal*, February 11, 2008).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셸이 엄마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지만 그녀 스스로 일하는 전문직 여성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버락 오바마도 미셸이 훌륭한 엄마인 것에 대한 찬사를 보내고 있다. 버락 오바마는 한 언론지와 이 인터뷰에서 “미셸은 우리 두 딸에게 아주 훌륭한 엄마입니다(*US Weekly*, June 30, 2008)”라고 말했다. 대통령 선거를 위한 캠페인 활동 기간에도 미셸은 무엇보다 어린 두 딸의 환경이 예전과 다름없이 일상적이 되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대통령 재임시절 동안 예도 두 딸의 사생활은 되도록 지켜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백악관의 다른 부분이 언론에 노출될 때에도 두 딸은 될 수 있으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점이다(Lightfoot 74).

미셸이 가족의 소중함을 주장함에 있어 자녀양육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다른 점은 가족의 건강, 특히 어린 자녀들의 건강문제였다. 2009년 그녀는 의사와 상담을 끝낸 후 딸들을 위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결국 식생활의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가족들은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았고 가능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식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이러한 식습관이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Mundy 17).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미셸은 어린이 건강, 특히 어린이 비만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미셸은 비만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유기농 채소를 먹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어

린이 비만 퇴치 캠페인(Let's Move!)’을 시작하면서 국민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장려하기 위해 ‘백악관 부엌 텃밭(White House Kitchen Garden)’을 가꾸기 시작했다(Obama, *American* 178).

미국 역사상 텃밭 가꾸기 운동을 전개했던 퍼스트레이디로는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퍼스트레이디였던 엘리노어 루즈벨트를 들 수 있다. 2차 대전 발발과 더불어 미국인들의 식생활에는 큰 변화가 있게 되었다. 그 당시 미국인들이 즐겨 먹던 통조림은 유럽으로 파병되었던 군인들을 위해 보내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소비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했다. 결과적으로 많은 미국인들은 그들의 뒷뜰에 “승리의 텃밭(Victory Garden)”을 만들게 되었고, 미국인들은 음식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과일과 야채를 여기서 생산하게 되었다(Schneider 243, 246). 미셸은 어린 시절 제 2차 세계 대전 당시 어머니가 승리의 텃밭에서 옥수수, 토마토, 완두콩, 시금치를 길러 이것을 섭취하였던 경험이 있었는데 당시 시카고는 승리의 텃밭을 주도했던 주이기도 했다. 시카고는 1500개가 넘는 마을 텃밭이 있었고, 25만 가구가 뒷마당에 승리의 텃밭을 가꾸고 있었다(Taylor 55). 미셸 오바마의 텃밭 작업은 백악관에 직접 승리의 텃밭을 만든 엘리노어 루즈벨트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했다. 엘리노어의 텃밭 이후 많은 퍼스트레이디들이 백악관 뜰에 정원을 꾸며왔지만 미셸의 경우는 백악관의 미관을 위한 것이 아니고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텃밭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었다.

2009년 4월 퍼스트레이디 미셸 오바마는 백악관 남쪽 잔디에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이러한 백악관 텃밭을 통해서 미전역에서는 어린이들의 건강과 웰빙과 관련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엄마이자 퍼스트레이디로서 미국 어린이들의 치솟는 비만율과 어린이들의 건강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텃밭을 가꾸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기를 희망하였다. 이러한 가족들의 먹거리를 개선하는 동안 미셸은 미전역의 텃밭들이 가족들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09년 백악관의 텃밭에는 다행히도 씨앗들이 뿌리를 내렸고, 모든 종류의 과일과 채소들이 무사히 자라게 되었다. 결국 백악관의 정원은 미국인들에게 새로운 선물과 교훈을 가

쳐다주었다(Obama, *American* 9, 18).

미셸 오바마의 ‘백악관 부엌 텃밭’은 여러 면에 있어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변화’와 ‘희망’의 리더십을 퍼스트레이디 입장에서 전개하면서 국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었다. 미셸 오바마는 그녀의 저서에서 봄은 희망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면서 이를 백악관 부엌 텃밭과 연결시켜 설명하였다. 그녀는 백악관 텃밭은 미국인들이 먹고 있는 음식에 관한 또는 이러한 음식이 아이들의 건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적 소통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궁극적으로 ‘백악관 부엌 텃밭’은 어린이들을 위한 미셸의 ‘희망’에 대한 표현이 되고 있다(Obama, *American* 23).

백악관 텃밭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국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미셸은 텃밭을 만든 목적을 백악관이 ‘국민의 집(People's House)’인 것처럼 백악관의 정원도 ‘국민의 정원(People's Garden)’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 정원을 국민들과 함께 나누기를 희망했다. 백악관 측은 정원을 가꾸기 위해 워싱턴에 위치한 뱅크로프트(Bancroft)초등학교에서 23명의 학생들을 초대하였다. 이 초등학교는 40개가 넘는 국가로부터 온 학생들과 선생님들로 구성된 다국적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학교로 미국이 다문화 사회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결국 2009년 4월 9일 미셸과 어린이들은 함께 백악관 정원에 묘목을 심었고, 뱅크로프트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동참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텃밭 가꾸기는 인종적 화합에도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이것은 텃밭이 백악관과 원주민들과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되었던 점을 통해서 볼 때 잘 알 수 있다. 미국 원주민들은 백악관 정원의 첫 번째 정원사들이 되었다. 미셸은 백악관 부엌정원이 원주민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기를 희망했다. 2011년 6월 3일 미국 알래스카의 젊은 원주민들이 백악관 정원 가꾸기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다. 특히 그들은 3자매로 불리는 옥수수, 콩, 호박을 재배하는 전통을 기념하기 위해 동참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행사는 매우 뜻 깊은 일이었다. 2011년 6월 3일 원주민 지도자인 푸른 하늘(Blue Sky)을 중심으로 원주민들은 미국 원주민 박물관이 기증한 체로키 흰옥수수, 방울뱀콩, 세미놀 호

박씨를 심었다. 이후 이 파종은 백악관 정원에서 가장 성공적인 작물재배가 되었다(Obama, *American* 48, 50).

미셸 오바마는 텃밭 가꾸기 사업을 구상할 때부터 어린이들이 정원을 가꾸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을 기대했다. 특히 그녀는 백악관을 한 번도 방문해 보지 못한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려 하였다. 미셸은 채소재배의 또 다른 목적은 '평등의식(equality)'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미셸은 어린이들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 “좋은 음식을 공유하는 경험은 서로 좋은 감정을 갖게 한다(Taylor 54).”고 언급하였다. 미셸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백악관 정원을 가꾸도록 초대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학교를 방문하여 정원 가꾸는 것을 돕기도 했다. 이러한 작업들은 미셸이 미국인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것이었다. 백악관 부엌 정원은 사람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특히 가족, 친구들, 이웃들, 심지어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조차 성공적인 수확을 희망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결국 2010년 2월 ‘백악관 부엌 텃밭’ 캠페인은 ‘어린이 비만퇴치 캠페인(Let's Move!)’을 전개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 캠페인은 세대 간 어린이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총괄적인 프로그램으로 부모, 공무원, 학교 선생님, 의료진, 전문가 어린이들 스스로가 참여하는 캠페인이 되었다(Gilman 4, 6). 이 캠페인은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먹도록 하고 어린이들로 하여금 더 활동적하도록 권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미셸은 이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들의 만성적인 비만문제를 학교나 커뮤니티가 중심이 되어 해결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IV. 패션 아이콘 퍼스트레이디

현대 사회에서 유권자들은 복잡한 정책적 이슈들에 의존하기 보다는 단순하게 비교, 판단할 수 있는 이미지에 근거해서 후보자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정치인들에게 있어 이미지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치인의 패션 스타일은 곧 그들의 정치적 성향과 이념을 나타내 주고 있기 때

문에 현대 정치에서 패션 이미지는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냈던 매들린 올브라이트(Madeleine Albright)는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브로치를 달았으며, 협상 결과를 묻는 기자들에게 “내 브로치를 읽어라”는 대답을 즐겨하였다(Malkin 59). 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패션이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달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정치인들 못지않게 그들의 배우자들도 노출빈도가 높기 때문에 선거기간이나 재임 당시 그들의 패션 스타일이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특히, 미셸 오바마의 경우에는 역사상 최초의 흑인 퍼스트레이디로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정치 유세에 나선 순간부터 정치인이 된 것과 다름이 없이 패션 이미지가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미셸 스타일이 말해주는 패션의 의미는 버락 오바마의 캠페인 구호인 ‘변화’와 ‘희망’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미셸은 또한 퍼스트레이디 패션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면서 미국사회의 변화를 반영했다. 그녀가 즐겨 입는 패션의 색깔은 젊은 오바마의 진보적 정치 성향이나 이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2008년 오바마가 대통령 경선에서 승리를 선언하던 날 미셸 오바마는 보랏빛 드레스를 선택해서 입었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정치적 의미가 담겨있었다. 미셸 오바마가 보라색을 선택한 이유는 ‘화합’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으로 민주당의 푸른색과 공화당의 붉은색을 섞은 조화를 상징하는 색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미셸이 2008년 ABC의 ‘더 뷰(The View)’에 출연했을 때에는 백인과 흑인의 화합을 기원하는 의미로 흑백으로 가득한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의 브랜드가 ‘화이트하우스 블랙 마켓’이었다. 또한 미셸 오바마는 강렬한 색상의 옷을 즐겨 입는데 그 이유는 불황 속에서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고 희망을 주기 위한 의도로 해석되었다(Norwood 133, 135). 이처럼 미셸의 패션 스타일은 시기적절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미국인들의 지대한 관심을 불러왔다.

미셸 오바마는 패션 스타일에 있어서 재클린 케네디와 비교되기도 한다. 미셸은 1960년대 재클린 케네디가 창조했던 재키룩을 또 다른 이미지로 재현해내고 있다. 미셸은 의상에서 중요한 요소를 ‘정직성’에 두었다. 미셸이 ‘정직성’을 패션을 통해 잘 표현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이유는 패션을 선택함에 있

어서 그녀 스스로의 생각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재클린과 비슷한 점이기도 했는데 그녀는 종종 "왜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입는지에 대해 관심이 그렇게 많지?"라는 질문을 하곤 하였다. 재클린은 어떤 옷이 그녀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이런 점은 미셸 오바마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미셸은 그녀의 패션철학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나는 그 사람이 무엇을 입느냐가 누구인가를 말해 준다고 생각한다. 나는 공식적인 이벤트가 있을 때 멋있어 보이는 것을 즐기는 편이지만 두 딸들과 아이오와 캠페인에 있을 때는 반바지와 티셔츠를 입는다(Cole 82)"라고 대답하였다. 미셸은 이렇게 퍼스트레이디 패션을 재정의 하였는데 이는 그녀의 패션스타일이 소위 말하는 전형적 '퍼스트레이디 룩'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점이 잘 말해주고 있다. 이전의 퍼스트레이디들이 대부분 정장을 즐겨 입었다는 점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로라 부시는 주로 '오스카 드 라 렌타'의 정장을 즐겨 입었고, 힐러리 클린턴은 다양한 브랜드의 바지정장을 즐겨 입었다. 이들의 정장은 미국 정가 여성들의 전형적인 패션이었고, 가격도 일반인들이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대부분의 퍼스트레이디들은 격식에 맞게 입어야 한다는 생각에 갇히곤 했다. 그러나 미셸의 경우는 이들과는 반대로 형식 보다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선호했다. 그녀는 화려한 패션 스타일로 유명했던 낸시 레이건과의 오찬 회동에 대중적 브랜드인 갭(Gap) 스웨터를 입고 나오는가 하면, 디자이너 제이슨 우의 1,500달러짜리 드레스를 즐겨 입기도 했다(Betts 145).

미셸 스타일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여성들로 하여금 형식에 얽매인 패션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는 점이다. 그녀의 스타일은 사람들이 무엇을 입었는지에 따라서 어떠한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고 있다. 그녀에게 있어 스타일은 개성과 자존감을 반영한다. 미셸 오바마는 대통령 취임식 아침 새로운 패션계의 아이콘으로 등장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미국 유명잡지 <베니티 페어>는 2007년 세계에서 가장 옷 잘 입는 여성 10인 중 한 사람으로 미셸을 선정했다(Betts xiii). 미셸 오바마는 놀랄 만큼 뛰어난 패션 감각을 바탕으로 유명 디자이너의 패션과 저가 브랜드를 적절히 잘 조합하고 평범한 기성복도 즐겨 입는다. 그녀는 또한 대담한 컬러, 굵은 벨트 등 과감한 시도들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

는 미적 감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미셸의 패션 특징은 그녀가 비록 퍼스트레이디이기는 하지만 인종과 계층을 초월한 친근한 일반 패션을 선호하고 즐겨 입는다는 점이다. 그녀는 따로 스타일리스트를 두지 않고 그녀가 좋아 하는 편하지만 개성 있는 스타일을 고집하고 있다.

미셸 오바마는 패션산업에 시너지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세련되거나 감각이 있다. 2008년 10월 27일 대통령 선거일을 1주일 앞두고 미셸 오바마는 제이 리노(Jay Leno)의 투나잇 쇼에 출현했다. 이때 미셸이 입고 출현한 제이 크루(J. Crew)의상은 그 전날 공화당 부통령 후보 세라 페일린(Sarah Palin)의 15만불에 달하는 의상과 비교되면서 미국인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제이 리노가 “당신의 옷 가격을 추측해 보건데 6-7만불 정도 될 것 같네요”라는 질문에 “사실 이 옷들은 제이 크루에서 사 입은 것 이에요”라고 대답하였다. 이날 미셸이 입었던 옷값이 500불 이하의 가격이라는 사실이 방송에 나간 후 제이 크루 소비는 64퍼센트 상승했고, 미셸이 입었던 스커트는 하루 전과 비교해서 판매가 464퍼센트 상승하기도 했다. 바블 때엔 “온라인 쇼핑으로 좋은 상품을 살 수 있어요”라는 재치 있는 답변을 통해서 그 당시 미국 경제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할 때 미셸의 패션은 미국인들을 감동시켰다. 이전의 퍼스트레이디들과는 달리 미셸은 그녀 스스로 온라인이나 카탈로그를 통해 패션을 구입하는 것을 즐기고 심지어는 세일 가격으로 그녀 스스로 옷값을 지불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Norwood 98, 100).

2008년 11월 오하이오 집회에 입고나온 노란색 제이 크루 가디건은 미셸 오바마가 즐겨입는 옷이었다. 제이 크루의 간부사원인 리온즈(Jenna Lyons)는 “미셸 오바마 덕분에 우리 회사 옷에 대한 이미지는 젊은이들이 입는 캐주얼한 분위기에서 좀 더 분위기 있는 옷의 이미지로 진화했다(Betts 7)”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또한 “요즈음 제이 크루 직원들은 옷을 판매할 때 마돈나와 같은 헐리우드의 유명 연예인을 언급하지 않고 미셸 오바마 스타일은 강조하는데 이러한 것이 판매율을 올리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Betts 10)”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미셸 오바마의 의상은 버락 오바마의 연설내용 만큼이나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사실 미셸은 2009년 1월 20일 버락 오바마 취임식 때 올리브 그린색 제이 크루의 가죽장갑을 끼고 있었는데 이후 인터넷 사이

트는 접속이 폭주하였으며 회사주가는 10.6퍼센트 상승하였다. 취임 다음날 제이 크루 대표 드렉슬러(Mickey Drexler)는 수 백 통의 전자메일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미셸이 취임식 때 끼고 있던 장갑을 구입하기 위한 것이었다. 많은 미국 여성들은 대통령 취임식 때 미셸에게 느꼈던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느껴 보기를 원했던 것이다. 미셸이 대통령 취임식 때 입었던 이사벨 톨레도(Issabel Toledo)의 드레스를 사 입을 수 있는 여성들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많은 여성들은 미셸 오바마가 착용했던 장갑은 살 수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엄마들은 그들의 딸들에게도 오바마 딸들이 입었던 벨벳리본을 착용한 모직 코트를 입히기를 원했다. 그녀의 딸들의 옷도 역시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었다. 여기서 중요하게 언급되어야 하는 점은 미셸이 즐겨 입는 옷들의 브랜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옷들은 일반 미국 여성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평범한 옷들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바로 미셸 효과의 한 부분으로 일반인들과 소통하고 그들로 하여금 퍼스트레이디에게 친근감을 느끼도록 하는데 큰 효과를 보았다.

미셸의 패션 스타일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한마디로 과감하고 자신감이 넘친다는 점이다. 노스캐롤라이나 샬롯(Charlotte)에서 열린 한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미셸 오바마는 노출이 심한 민소매 드레스 차림으로 연설을 하였다. 다음날 에이비시(ABC)방송국의 ‘굿모닝 아메리카(Good Morning America)’를 비롯해 씨엔엔(CNN), 폭스(Fox) 등의 미디어는 앞을 다투어 미셸의 의상에 대해 보도하였다. 이 매체들이 집중한 것은 연설의 내용이 아니라 조금은 과해 보이는 그녀의 옷차림이었다. 이제는 미셸 오바마의 전형처럼 되어버린 민소매 차림의 패션은 초기에는 퍼스트레이디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미셸의 이러한 패션스타일은 점점 다른 평가를 받게 되었다. 피플즈 매거진(People’s Magazine)의 웨스트폴(Westfall)은 “내가 생각하기에 미셸 오바마는 소위 프로페셔널 룩의 범위를 넓혀 준 것 같다”고 언급하였다. 에이비시 뉴스(ABC News) 기자 주드(Jackie Judd)는 1987년 ‘굿모닝 아메리카(Good Morning America)’라는 프로그램에서 노출이 심하다는 이유로 문책을 받았던 기억을 회상하면서 미셸 오바마는 직장에서 여성들이 좀 더 자유롭게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녀는 이제는 민소매

나 맨발 차림으로도 퍼스트레이디 미셸과 인터뷰하는 것에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셸 오바마의 패션에는 그녀만의 자신감과 가치관이 담겨있다. 미셸 오바마는 이전의 퍼스트레이디들과는 차별화된 감각적이고 대담한 스타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21세기 전문직 여성이면서도 여성스러움을 중요시하는 시대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유명 잡지 맥심(Maxim)에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여성 100인’에 이름을 올린 첫 번째 퍼스트레이디가 될 정도로 그녀의 룩은 과감하고 적극적이다(Taylor 33). 또한 기존의 많은 퍼스트레이디들의 다소곳하고 단아한 패션과는 다르게 소매가 짧은 활동적인 의상과 공식 석상에서 연설 할 때는 소매를 살짝 걷은 채로 연단에 서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미셸 오바마 패션의 특징은 그녀만의 스타일의 원칙을 지키면서 그녀만의 스타일을 완벽하게 창출해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워싱턴 포스트지의 패션 편집장 지반(Robin Givhan)의 말처럼 미셸 오바마는 모든 것을 잘 섞어 놓은 현대적 스타일의 패션 감각을 지니고 있다(Betts 153). 미셸의 자신만의 독특한 감각은 다른 여성들로 하여금 패션 스타일을 구사하는데 좀 더 자유로워 질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있다. 이러한 패션에 있어서의 당당함이 그녀가 많은 미국 젊은 여성들의 롤 모델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V. 새로운 퍼스트레이디의 새로운 리더십

미국 역사상 퍼스트레이디들은 시대 역사의 흐름과 함께 호흡해 왔다. 그들의 역할은 단순한 백악관의 안주인 역할에서 벗어나 사회운동가로 또는 대통령의 정치적 동반자로서 시대가 흐를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 졌다. 2009년 1월 백악관의 새로운 여 주인이 된 미셸 오바마는 “이 나라 역사상 모든 퍼스트레이디들은 각각 독특하게 다른 업적들을 이루어 왔고 근본적으로도 다른 방향에서 그 역할을 해 왔다.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나 같은 사람이 퍼스트레이디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CBS Evening News, 2008년 2월)”라고 언급하면서 퍼스트레이디로서 그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09년 이래로 미셸은 그녀만의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미국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녀의 새로운 리더십의 핵심 철학은 다름 아닌 버락 오바마의 아젠더인 ‘변화’와 ‘희망’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의 노력을 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 모든 노력은 소위 “미셸효과”라는 용어를 만들어 내며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새로운 리더십의 특징으로는 ‘희망의 리더십’을 들 수 있다. 2008년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미국 발 경제 위기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희망이 필요했다. 그러한 것을 잘 충족시켜 준 사람이 바로 미셸 오바마였다. 미셸은 직접 쓴 연설문을 들고 연단에 섰다. 미국의 현 상황을 노골적으로 비평하기보다 앞으로의 희망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미셸이 미국 최초의 흑인 퍼스트레이디가 된 스토리는 ‘미국인의 꿈(American Dream)’의 상징이 됨으로서 미국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해주기에 충분했다. 이는 1930년대 미국이 경제공황의 늪에 빠져 있을 때 퍼스트레이디 엘리노어 루즈벨트가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소통했던 상황과 유사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국민이 필요로 했던 것은 우선적으로 심리적 안정과 희망에 대한 비전이었다.

희망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또 하나의 중요한 노력은 미셸의 미국 내 인종문제에 대한 관심과 변화의 모색이다. 이것은 미국 내 인종문제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한다는 점에서 “미셸 효과”를 찾아볼 수 있는 한 부분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2008년과 2012년 대통령 선거전에서 미셸이 오바마의 승리에 큰 역할을 한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다름이 아닌 미셸은 흑인사회와의 정서적 교감을 통해서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었다. 미셸은 버락 오바마의 가족적 배경으로 인한 미국 내 흑인들의 불신을 신뢰로 돌아서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다양한 인종적 결합으로 구성된 버락의 가족적 배경과는 대조적으로 미셸의 가족은 전형적인 흑인가족으로서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가족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완전했다(Lightfoot 122).” 미셸 오바마가 시카고 흑인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버락

오바마에게는 큰 장점이 되었다. 버락 오바마의 인종적 배경을 두고 많은 흑인들이 그를 냉소적으로 바라볼 때 미셸은 그들을 향해서 버락의 흑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종문제를 초월한 건강한 가족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그녀는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건강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Newsweek*, 2008년 1월)”라고 언급하면서 그동안 미디어에서 흑인에 관한 정보나 이미지가 얼마나 많이 왜곡되어 왔는지를 지적하였다. 따라서 미셸은 사회에 팽배해 있는 흑인에 대한 잘못된 시선과 편견에 대해서도 냉철한 의식을 가지고 변화의 필요성을 모색하였다.

“미셸 효과”의 결과로 미국 내 대중문화에 나타난 흑인가족, 특히 흑인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서서히 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대중문화 속에 나타난 흑인 여성들은 매우 친한 역할의 이미지를 하고 있었다. 특히 영화에 나오는 흑인여성들의 이미지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볼 수 있는 유모의 이미지나 아니면 '할레루야'에서의 요부 이사벨과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미국 대중문화 속에 나타난 흑인여성들의 이미지는 매우 극단적이어서 성적이거나 아니면 성적인 것과는 아주 무관한 이미지를 하고 있었다(Harris 234).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2008년 미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미셸 오바마의 이미지에 대한 대중매체들의 관심은 미셸을 장차 미국의 퍼스트레이디로 어떻게 이미지화 할 것인가 이었다. 당시에는 여전히 '화나고 강한 흑인여성'이 모든 계층의 흑인 여성들에게 적용되는 고정 관념 이었다(Harris 237). 2008년 미 대통령 선거전을 위한 정치적 행사를 통해서 미셸이 목표로 삼은 것은 미국 내 흑인들의 이미지 변화였다. 그녀가 빈곤, 저학력 범죄의 이미지로 대표되는 흑인의 이미지 개선을 목표로 삼은 철학은 한 인터뷰기사에서 잘 나타나 있다.

내가 이러한 정치적 캠페인을 통해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이 사회에서 흑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데 있다(Collins, “Black Sexual” 174).

미셸은 의심할 여지없이 이러한 과업을 잘 수행하였다. 미국 내 흑인 여성이 텔레비전 이미지에서 변화를 불러오게 되었다.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대중

매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흑인들의 정치, 경제적 참여는 더 이상 낮은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미셸의 정치적 캠페인 참여는 미국 내 흑인들에 대한 특히 흑인 여성들의 이미지를 변화시키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리더십은 수평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정직한 리더십’으로 이것은 특히 그녀가 패션 아이콘으로 미국인에게 상징되는 점을 통해서 볼 때 잘 나타난다. 그녀는 패션을 통해서 미국여성들과 끊임없는 소통의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패션계에서 미셸 효과를 보면 그녀는 패션업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의류산업에 미셸 오바마가 몰고 오는 바람은 “미셸 오바마 효과(The Michelle Obama Effect)”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내었다. 예르마크(David Yermack) 뉴욕대 교수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11월 호를 통해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그녀의 패션이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가 무려 27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미셸이 공식석상에 189회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녀가 한번 옷을 입고 나타날 때 마다 패션업계에 약 1400만 달러 영향력을 미친 셈이다. 특히 그녀가 2009년 봄 유럽을 순방할 때 입었던 삭스, 제이크루 등의 브랜드는 순방 일주일 동안 주가가 평균 16.3퍼센트나 올랐다(<http://www.hbr.org/web/estras/michelle-obama-effect>). 미셸 오바마는 정직함을 바탕으로 이러한 변화를 가져왔고 특히 패셔니스트가 아닌 친서민적인 이미지는 미국인들에게 큰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미셸은 2007년 12월 한 지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녀가 진심으로 원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였고 그것이 그녀의 최대의 장점이라고 언급하였다. 미셸 오바마는 항상 겸손하면서도 열성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점도 미국인들에게는 좋은 인상을 주고 있다. 2011년 여론조사에서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도가 43퍼센트인데 반해 미셸의 지지도는 63퍼센트로 나타났다. 미셸은 ‘투나잇쇼’ 등의 텔레비전 토크쇼에 자주 출연했는데 그때마다 진행자 못지않은 말솜씨를 보이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미셸 오바마는 미국의 퍼스트레이디의 역사를 새로 쓴 정직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미셸 오바마에게 찾아 볼 수 있는 것은 ‘감성적 리더십’이다. 가족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부드러움을 지닌 미셸은 21세기에 필요로 하는 감

성적 리더십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21세기는 흔히 여성의 시대라고 부른다.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들이 두각을 나타낸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08년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여성 유권자의 힘’이 크게 증명되었다. 미셸 오바마의 감성적 리더십은 버락 오바마와 여성들 사이에 정서적 교두보 역할을 잘 수행한 점들을 통해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는 2008년 버락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하게 된 결과에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했다. 미국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항상 그래 왔듯이 2008년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계층은 확연히 구분되었다. 당시 에디슨 리서치가 실시한 출구조사에 따르면 오바마는 흑인, 히스패닉, 여성, 20대 이하 노조, 동성애자 및 유대인 그룹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다. 또한 2012년 대선결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미국대선을 흔든 것은 ‘여성의 힘’이었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율은 53퍼센트에 육박했고, 오바마 지지율은 여성은 55퍼센트 남성이 45퍼센트로 나타났다. 영국의 BBC 분석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투표하고 남성보다 훨씬 더 진보적인 성향을 지녔으며, 여러 면으로 여성들은 더 이상 소수의 이익집단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여성들은 투표수에서 남성들을 앞섰다. 그 중에서도 핵심 지지층은 미혼 여성들이었다(<http://www.cnn.com/election/2012/results/main>). 이러한 결과도 2008년 이래로 새로운 퍼스트레이디로 미국의 여성들과 젊은이들의 멘토 역할을 해 오고 있는 미셸이 어느 정도 기여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미셸 오바마는 능력을 지닌 여성으로 많은 젊은 여성들은 미셸을 그들의 롤 모델로 삼고 있다. 그녀가 ‘강한 여성’, ‘강한 아내’ 더 나아가 ‘엄마 사령관’으로 변천을 거듭하면서도 젊은 여성들의 멘토가 될 수 있었던 점은 미셸의 강한 자존감을 바탕으로 한 당당함 이었다. 2008년 래리 킹 라이브에서 미셸은 퍼스트레이디의 역할수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였다.

이 자리에 관해 알면 알수록 해야 할 일이 많더라고요, 다행히 나는 많은 일들을 동시에 해내는 일을 잘 합니다. 나는 순서대로 리스트를 정리하고 내 생활 속에서 질서를 만드는 걸 시작합니다. 나는 퍼스트레이디 자체에 몰두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모든 일은 제자리를 찾아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CBS *Evening*

News, 2008년 2월).

미셸 오바마는 기회가 올 때 마다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유용한 일이 무엇일까 항상 고민해 오고 있다. 퍼스트레이디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솔직한 인터뷰로 언론의 비난을 사기도 하지만 미셸은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해 내고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지켜내는 자존감을 지켜나가고 있다. 미국 내 워킹맘의 전형적인 모델로 균형을 잃지 않는 조화로운 생활을 지켜왔다. 2009년 미셸 오바마가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퍼스트레이디가 된 후에도 미셸은 가슴속 열정을 가지고 평소에 관심을 가져왔던 커리어 여성들의 일과 과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등에 많은 열정을 쏟아 붓고 있다. 무엇보다도 미셸은 젊은 여성들에게 당당히 살아가라는 조언을 잊지 않는다.

VI. 결론

역사적으로 미국의 퍼스트레이디들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들은 묵묵히 남편인 대통령을 내조하는 퍼스트레이디가 있는가 하면 대통령의 역할 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정치적 동반자로 남편의 활동을 지지하고 조언하기도 하였다.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전에서 대통령 후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셸 오바마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퍼스트레이디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가치관, 패션 스타일, 교회종파, 정치적 성향에 관한 많은 코멘트와 비평을 견뎌내야만 했다. 이렇게 미셸 오바마가 퍼스트레이디가 되는 길은 멀고 험난했다. 2008년 대통령 선거전을 통해서 미셸 오바마는 그 이미지가 ‘강한 여성’에서 ‘강한 아내’로 변화했고, 퍼스트레이디가 된 후로는 엄마 총사령관인 ‘강한 어머니’의 이미지로 변화를 모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끊임 없는 변화의 모색 바탕에는 그녀의 당당한 자신감이 함께 하였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의 탄생과 같이 미셸 오바마도 미국인들 뿐 만 아니라 전세계인들에게 있어 새로운 변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21세기는 여성적 감성이 매우 중요한 이미지 소통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를 맞아 정치인들은 그들의 패션 스타일로 정치적 성향과 이념을 대변하고 있다. 미국의 새로운 퍼스트레이디 미셸 오바마는 새로운 패션 아이콘으로서 패션의 힘을 잘 알고 있고 이미지의 영향력을 잘 활용하고 있다. 퍼스트레이디의 패션은 당대 패션의 아이콘이며 국가경제, 문화수준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가치의 표상이 되기도 한다. 또한 각국 퍼스트레이디들은 패션을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패션에 있어서 당당하고 적극적인 활용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새로운 패션 아이콘이 된 퍼스트레이디 미셸 오바마는 “미셸효과”를 불러일으키며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미국에서 미셸 오바마의 라이프 스토리는 전형적인 ‘미국인의 꿈(American Dream)’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자 계층의 부모님 밑에서 성장한 미셸은 부모님의 교육에 있어서는 매우 헌신적인 양육에 힘입어 프린스턴과 하버드 법대를 졸업하였다. 이는 미셸이 궁극적으로 퍼스트레이디가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퍼스트레이디는 대통령의 첫 번째 조연자로 때로는 부통령 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미셸 오바마의 경우는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미셸 오바마가 능력 있는 여성을 넘어 많은 사람들의 멘토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자존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셸의 정치철학은 원래 그가 누군지를 변화시키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그녀에게 있어서 정치란 말 그대로 정치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미셸 오바마는 여러 방면에서 현 오바마 행정부와 미국사회의 정서적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8년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미셸의 역할은 미국인들에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더욱 친근한 한 인간으로 부각 시키면서 남편과 유권자들을 연결시켜 주는 하나의 정서적 통로 역할을 담당했다. 이러한 노력은 그녀가 퍼스트레이디가 된 후에도 계속되었다. 그녀의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보여준 “미셸효과”는 흑인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변화시킨 점과 패션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그녀는 비만 퇴치운동을 통해 어린이 비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켰고 미국의 젊은 여성들에게 편견에 맞서 꿈을 향해 노력하는 모습의 멘토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 또한 남편 버락 오바마에 대한 강한 믿음과 격려가 대중들에게 강한 호소

력을 지니게 되면서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데에도 큰 힘이 되고 있다.

2009년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퍼스트레이디로서 백악관의 안주인이 된 미셸은 이전의 퍼스트레이디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국민들과 소통하려 노력했고, 미국인들은 그녀의 진정성에 큰 박수를 보냈다. 현재 백악관에서 퍼스트레이디 미셸 오바마는 새로운 리더십을 전개하고 있다. 그녀는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방향이기도 한 다른 인종, 계층, 학력, 빈부의 차이를 초월해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힐러리가 보여주었던 정치적 역량과 로라 부시의 전통적 퍼스트레이디의 면모를 고루 잘 갖춘 새로운 퍼스트레이디 미셸 오바마가 그녀 자신만의 스타일과 행보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것이 21세기 새로운 퍼스트레이디의 새로운 리더십이 미국역사에 어떠한 모습으로 남게 될지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인 용 문 헌

- Adler, Bill ed. *America's First Ladies: Their Uncommon Wisdom from Martha Washington to Laura Bush*. Maryland: Taylor Trade Publishing, 2002.
- Betts, Kate. *Everyday Icon: Michelle Obama and the Power of Style*. New York: Clarkson Potter, 2011.
- Cole, Harriet. "The Real Michelle Obama: Who is This Woman?" *Ebony*, 63, No. 11. September, 2008: 72–92.
- Collins, Patricia Hill. *Black Sexual Politics: African Americans, Gender and the New Racism*. New York: Routledge. 2005.
- Collins, Lauren. "The Other Obama: Michelle Obama and the Politics of Candor," *New Yorker*, March 10, 2008.
- Edward, Roberta. *Michelle Obama: Mom-in-Chief*, New York: Grosset & Dunlap. 2009.
- Gillan, Stephanie L. *On Target: Minority Outreach Strategies of Let's Move! Campaign*, Thesis. Chapel Hill, Mass Communication in the School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2012.
- Gould, Lewis. "Modern First Ladies and the Presidency,"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20. Fall, 2000: 667–683.
- Graham, Wade. *American Eden: From Monticello to Central Park to Our Backyards*. New York: Harper Collins, 2011.
- Harris, Bill & Moffitt, Kimberly R. *The Obama Effect: Multidisciplinary Renderings of the 2008 Campaign*. New York: Suny Press, 2010.
- Harris, Heather. *The First Ladies: Fact Book*. New York: Black Dog & Levental Publishers, 2008.
- Iyengar, Shanto. *Is Any one Responsible? How Television Frames Political Issu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1.
- Jacobs, Sally. "Learning to Be Michelle Obama," *Boston Globe*, June 15,

2008.

- Keen, Judy. "Michelle Obama: Campaigning Her Way," *USA Today*, May 11, 2007.
- Langley, Monica. "Michelle Obama Solidifies Her Role in the Election," *Wall Street Journal*, February 11, 2008.
- Leary, Kevin. "Why Barack Loves Her," *US Weekly*, June 30, 2008.
- Lightfoot, Elizabeth. *Michelle Obama: First Lady of Hope*. Connecticut: The Lyons Press, 2009.
- Malkin, Michelle. *Culture of Corruption: Obama and His Team of Tax Cheats, Crooks, and Cronies*. Washington, D.C.: Regnery Publishing, 2010.
- Mundy, Liza. *Michelle: A Biograph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2008.
- Norwood, Mandy. *Michelle Style: Celebrating the First Lady of Fashion*, New York: Williman Morrow, 2009.
- Obama, Michelle and Rogak, Lisa. *Michelle Obama in Her Own Words: The Views and Values of America's First Lady*. New York: Perseus Books Group, 2009.
- Obama, Michelle. *American Grown: The Story of the White House Kitchen Garden and Garden Across America*. New York: Crown Publishers, 2012.
- Rogak, Lisa ed. *Michelle Obama: In Her Own Words*. New York: Public Affairs, 2009.
- Saulny, Susan. "Michelle Obama Thrives in Campaign Trenches," *New York Times*, February 14, 2008.
- Scharrer, Erica and Kim Bosse. "Overcome Traditional Boundaries: The Role of Political Activity in Media Coverage of First Ladies," *Women and Politics*, 21. Winter, 2000: 55-83.
- Schneider, Dorothy. *First Ladies: Biographical Dictionary*. New York: Facts on File Books, 2010.

- Seale, William. *The White House Garden*. 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Historical Association, 1996.
- Seelye, Katherine Q. "Michelle Obama Dismisses Criticisms," *New York Times*, October 9, 2008.
- Shipman, Clair & Ricci Susan. "Michelle Obama's Passions: Wife, Mother, Intellectual American Woman," *ABC News*, July 7, 2008.
- Taylor, Mikki. *Commander in Chic*. New York: Atria Book, 2011.
- Treby, Guy. "She Dresses to Win," *New York Times* Style section, June 9, 2008.
- Vander, Stacie ed. *Michelle Obama: Speeches on Life, Love, and American Values*. New York: Pacific Publishing Studio, 2009.
- Vander, Stacie ed. *Michelle Obama to Martha Washington*. Beacon Hill: Pacific Public Studio, 2010.
- Venochi, Joan. "Make Over Old Views, Not Political Dives," *Boston Globe*, June 29, 2008.
- William, Foss ed. *First Ladies Quotations Book*. New York: Barricade Books, Inc, 1999.
- Winfield, Betty Houchin and Friedman, Babara. "Gender Politics New Coverage of the Candidates' Wives in Campaign 2000,"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0, No. 3. Fall, 2003: 548-575.
- Wyatt, Jean. "Patricia Hill Collins's Black Sexual Politics and the Genealogy of the Strong Black Woman," *Studies in Gender and Sexuality*. No. 9, 2008: 52-67.
- York, Byron. "Michelle Obama's Two Americas," *National Review*, August 26, 2008.
- <http://www.cnn.com> (검색일: 2013. 9.15)
- <http://www.hbr.org> (검색일: 2013. 9. 12)
- <http://www.letsmove.gov> (검색일: 2013.11.3)

Abstract

A Study on the Life of First Lady Michelle Obama and the “Michelle Effect”

Chang-Shin Lee (Duksung Women's University)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ole of Michelle Obama as First Lady, her leadership and the Michelle effect. On January 20, 2009, Barack Obama made history. He became the first African-America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n that same day, his wife, Michelle Obama also made history, becoming the first African-American First Lady. Michelle Obama represents a First Lady who is more than a figurehead. She works for causes that have special meanings for American families and children.

By working on the campaign trail sharing in Barrack's vision, Michelle played an integral role as a powerful wife in the election of her husband. Having been a working mom, she hoped to help other women juggle the demands of a job and a family. After she became the First Lady, Michelle has continued to do what she enjoyed most, being the Mom-in-Chief. In April 2009, Michelle planted a kitchen garden at the White House. The White House Kitchen Garden inspired a new conversation across the country about food, health and the well-being of the children. In February 2010, she launched Let's Move!, a national campaign for childhood obesity. Let's Move is a multi-faceted attempt to increase knowledge and change attitudes and social norms regarding healthy eating and exercise. Ultimately, the White House Kitchen Garden along with the Let's Move campaign—is an expression of hope for the American people.

Michelle also became a fashion icon. Her fashion style became one of the important ways to she connected with the people. She mixed and matched different designers, styles and price-points. She also dressed—the way of most middle class American women would dress. As a result, Michelle Obama created the so called “Michelle Effect.”

Michelle Obama embodies the American story—the American Dream. She is charismatic in a smart and gutsy way. Michelle Obama is able to combine her contemporary style and working mother identity. Through speeches, interviews, and town hall meetings, Michelle Obama inspires women and men all over the world and continues to serve as an impressive role model and new leader.

Key Words: Family Values, Michelle Obama, Michelle Effect, Barrack Obama, First Lady

가족적 가치, 미셸 오바마, 미셸 효과, 버락 오바마, 퍼스트레이디

논문접수일: 2014.1.26

심사완료일: 2014.2.16

게재확정일: 2014.2.23

이름: 이창신

소속: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주소: 132-714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길 144길 33

이메일: leechang@duksung.ac.kr

